

# ‘중동수주 1위’ 中에 넘겨준 건설사, 올해는 ‘권토중래’

〈捲土重來〉

## 증권 다이제스트



### 유안타증권

#### ELS 2종 100억 규모 공모

유안타증권은 오는 8일까지 상품별로 각각 수익성 높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춘 유안타 휴먼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휴먼S ELS 제4192호'는 조건 충족 시 상환되는 수익률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했다. 만기 3년, 조기 상환 주기 4개월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손업희 기자

### 미래에셋대우

#### 펀드 자산증대 이벤트 2종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월 28일까지 '미래에셋대우 뉴 트렌드 펀드 자산증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하와이 이벤트'는 대상 상품 합산 순매수금액 1억원 이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하와이 왕복 항공권과 최고급 호텔 숙박권(4박 6일, 1명), 국민관광상품권 50만원(2명)을 제공한다. 두 번째 'TDF 동행 이벤트'는 선정된 4개 운용사의 TDF 상품 합산 순매수금액 규모에 따라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김민호 기자

### 신한금융투자

#### 해외선물옵션 고객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선물옵션 신규고객에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거래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선물옵션 서비스 신규 및 3개월 무거래 고객 가운데 3월 29일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데스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고객 전원은 신청일 익일부터 6개월간 미국 달러(USD)결제 품목을 계약당 2.99달러로 거래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

### 하이투자증권 교대역지점

#### 시스템 트레이딩 무료교육

하이투자증권 교대역지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월·화·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시스템 트레이딩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1인 1PC로 진행되는 본 교육과정은 시스템 트레이딩용 HTS인 예스트레이더의 사용방법과 시스템 매매를 위한 기술적 분석기법, 전략 아이디어, 자금관리, 터블 트레이딩 등 시스템 매매를 위한 이론부터 각종 매매예제 실습을 통한 랭귀지 코딩 기법까지 집중교육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손업희 기자

작년 수주 321억 달러, 10.7% 증가  
양적 성장했지만 중동 실적 아쉬워  
‘부진 vs 장밋빛’ 올 전망은 엇갈려

지난해 건설사들은 가까스로 해외 수주액 300억달러를 넘겼다. 아시아·유럽에선 약진했으나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중동에선 고전했다. 올해도 업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가운데 건설업계가 해외건설 시장에서 ‘부진의 늪’을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2018년, 중동에서 만난 한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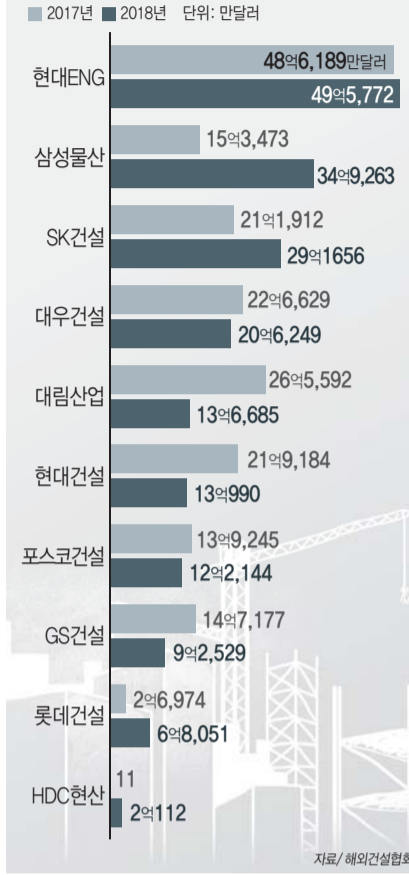
3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21억달러로, 지난해(290억 달러) 대비 10.7% 증가했다. 해외 수주액이 3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3년 만이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6년 만이다.

지난해 11월까지지만 해도 300억달러 돌파가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다 12월 중·하순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러시아 안티핀스키 석유화학설비공사(30억 달러 규모)’,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남북고속도로 102·111공구(8500억원 규모)’ 등의 사업을 따내며 수주 갭을 채웠다.

양적 성장은 이룬 셈이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미진한 성적을 보이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 수주가 쏠렸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중동 수주액은 92억달러로 전

### 10대 건설업체 해외수주 실적 비교



년(146억 달러) 대비 36.5% 감소했다. 중동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기지 못한 건 12년만에 처음이다. 국내 건설사의 전체 해외 수주액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6%에서 지난해 28.6%로 3분 1 수준으로 쪼그라 들었다.

해외 수주의 중심축은 중동에서 아시

아·유럽 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아시아는 2017년 125억달러에서 2018년 162억달러로 1년 새 30% 가까이 수주액이 늘었다. 유럽도 같은 기간 3억달러에서 37억달러로 10배 이상 수주 규모가 커졌다. 태평양·북미는 6억달러에서 10억달러, 아프리카는 7억달러에서 12억달러, 중남미는 4억달러에서 7억달러로 수주액이 증가했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만 봤을 때 2018년도 해외수주액은 283억달러다.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 대상 업체 총 1608개(하청 440개사 포함) 가운데 10개 업체에서 전체 수주액의 97.6%를 채운 셈이다.

이들 건설사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HDC현대산업개발(18만2736%), 롯데건설(152%), 삼성물산(128%)은 전년보다 해외 수주액이 100% 이상 늘었다. 반면 대림산업(-49%), 현대건설(-40%), GS건설(-37%)은 전년 대비 해외 수주 실적이 크게 줄었다.

#### ◆올해 해외수주 기상도는?

그렇다면 올해 해외수주 실적은 어떨까. 업계에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중동 수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적에 먹구름이 짙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건설전문지 ENR(Engineering News-Record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중동 시장에서 164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확보해 지역 내 수주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2위로 밀려난 건 처음이다. 중국 등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열린 ‘2019 건설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2019년 건설지표는 올해보다 수주, 기성, 투자 등 전 분야에서 부진할 것”이라며 “이런 추세는 오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2019년 해외건설 수주규모는 양질의 프로젝트 확보의 어려움으로 300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을 지난해 대비 약 38% 증가한 450억달러로 예상했다. 중동지역의 실적이 개선되고 아시아-아프리카지역 수주도 늘어날 것이라 이유에서다.

KB증권 장문준 연구원은 “업황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해외수주 증가가 기대되지만 과거의 저가 수주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과연 신규 해외수주에서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대형건설사의 해외부문에 대해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올 수도권 분양 12만가구... 지난해비 46% 급증

### 위례포레시아 등 서울 지역 신도시 물량 1636가구 포함

올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2만704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작년(8만2404가구) 대비 46% 가량 많은 물량이다. 작년 초(1월1일 기준) 집계된 계획물량은 12만9494가구였으나 부동산시장 규제,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분양이 다수 미뤄졌다.

올해도 개편된 청약 제도와 규제 정책으로 계획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지는 미지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3일 “새해 서울의 경우 연기된 물량과 강남 재건축 분양이 상당 수 포함 돼 있으며 경기, 인천지역에서는 신도시 일대와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관심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이달 GS건설 위례포레시아 558가구,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 〈2019년 서울 주요 분양예정 단지〉

분양시기	위치	단지(사업)명	총가구	일반분양	전용면적(㎡)	시공사
1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 SKY-L65	1,425	1,253	84~117	롯데건설
3월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A1-6블록	위례송파 리슈빌	494	494	105~130	계룡건설
4월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서초그랑자이	1,446	167	43~119	GS건설
4월	강남구 일원동 690-1(일원대우 재건축)	디에이치 포레스트	173	63	59~121	현대건설
5월	강남구 삼성동 19-1 상이2차 재건축	상이2차(래미안)	679	115	59~149	삼성물산
6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	개포주공4	3,343	238	59~132	GS건설
7월	영등포구 신길동 145-74(신길3구역)	더샵(신길3구역)	799	368	59~121	포스코건설
9월	은평구 증산동 213-20(일원(증산2구역))	자이(증산2구역)	1,386	461	38~84	GS건설
9월	강동구 둔촌동 170-1(둔촌주공)	둔촌주공 재건축	12,032	5,056	29~165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10월	강남구 개포동 660-1	개포1단지	3,128	603	미정	HDC현대산업개발

북위례 1078가구 등 신도시 물량이 포함돼 있다. 이어 정비구역 아파트로는 이달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SKY-L65’ 1425가구를 분양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 대규모 복합단지인 GTX-B노선과 C노선이 지날 청량리역 역세권 단지다.

오는 9월 GS건설은 은평구 증산동 증

산2구역에 자이아파트 1386가구(일반 461가구), 포스코건설은 영등포 신길뉴타운3구역에 더샵799가구를 7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재건축 아파트로는 오는 4월 GS건설이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를 선보인다. 총 1446가구 규모다.

5월에 삼성물산은 강남구 삼성동 상

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아파트’ 679가구를 분양한다. 1만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9월에, 개포지구 최대 규모인 개포주공1단지 3128가구는 10월에 분양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1199가구, 2월 GS건설 컨소시엄이 ‘광주 역동 광주역세권개발지구’ 1542가구, 포스코건설이 남양주 진접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153가구를 분양한다.

이어 오는 4월에는 대림산업이 성남 금광1구역을 재개발해 5320가구를 짓는 ‘e편한세상 아파트’를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우미건설이 서구 검단신도시에 1268가구, 대림산업과 삼호가 계양구 효성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1576가구,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 F20-1,25-1블록에 짓는 ‘더샵 아파트’ 826가구 등을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 한국투자증권 ‘미래인재 아카데미’ 신설

한국투자증권은 대한민국 증권업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 ‘한국투자증권 미래인재 아카데미(Korea Investment Securities Future Academy)’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간 월1회 이상의 집합교육과 외부활동으로 진행되는 KISFA는 증권회사 본사·지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직무경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금융과 증권업 이해도 향상 ▲증권사 직무별 현장체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 ▲커뮤니케이션 스킬 증진 ▲협업능력 강화이며, 오프라인 집합교육 및 팀·개인별 미션 수행과 액티비티 활동이다.

참가자는 1단계 유튜브(YouTube)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열정과 도전정신, 창의성을 주제로 한 자유형식 자

### 내일부터 5개월간 KISFA 진행 과정우수자 인턴 최종면접 직행

기소개, 2단계 사회진반 이슈에 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열린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평가하는 심층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금융전문인 양성을 위한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인 만큼 회사 홍보대사와 같은 활동은 배제하고 금융인 역량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전문강사를 통한 실용과목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KISFA 수료 학생 전원에게는 KISFA 수료증, 2019 하반기 서류 전형 통과해택(지원분야 무관)과 최신행 아이패드를 제공하며, 과정 우수자에게는 2019 채용연계형 인턴 최종면접 직행(지원분야 무관) 등 업계 최고 수준 혜택이 주어진다. /김민호 기자 kmh@